https://doi.org/10.5392/JKCA.2018.18.01.196

은행의 수익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금융위기 전·후 비교를 중심으로

A Study on Determinants of Banks' Profitability: Focusing on the Comparison between before and after Global Financial Crisis

김미경, 엄재근
서울과학종합대학원대학교

Mi-Kyung Kim(kmk0515@gmail.com), Jae-Gun Eom(01027144370@naver.com)

요약

은행의 수익성과 관련하여 어떠한 요인들이 영향을 미치는지 연구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은행의 수익성 개선을 위한 자금조달구조의 다양화 측면에서 기존연구와 달리 시장성수신비중을 주요 관심변수로 하여 8개의 설명변수와 총자산영업이익률을 수익성 지표로 사용하여 가설설정하고 전체기간과 금융위기 전·후 로 비교 분석하여 차이를 보고자 한다. 다중회귀분석한 결과, 모든 분석기간에서 유의미한 결과가 나타나는 수익성 요인은 원화예대금리차, 점포수, 고정이하여신비율이며 국내은행은 원화예대금리차가 커지고 점포수가 증가할수록 수익성도 향상되고 부실여신이 증가하면 수익성도 하락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시장성수신비중은 은행의 수익성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주지는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글로벌 금융위기이전에는 거시경제지표의 영향을 받기 보다는 개별 은행의 상황 및 다른 금융환경의 영향을 더 받았다는 것을 알 수 있으며 금융위기이후에는 은행의 여신이 증가하면서 수익성도 향상되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은행의 수익성 요인은 분석 기간별 특징이 있다고 추론되며 이에 그 의미와 시사점을 가진다. 향후 은행산업의 수익성에 관한 연구는 특수은행이 포함된 국내은행 전체로 대상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 중심어 : | 자금조달구조 | 시장성수신비중 | 총자산영업이익률 | 수익성지표 | 다중회귀분석 |

Abstract

This study is founded on banks' profitability factors. Unlike the previous study in terms of diversification of the banks' funding structure, this research performs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during the entire period and examines the comparative analysis of before and after the financial crisis. the study establishes hypotheses by using the wholesale funding ratio as a key focus variable with 8 explanatory variables and the operating profit on assets as a profitability index. The Loan-deposit rate gap, the Number of stores and the Non-performing loan ratio prove to be a significant profitability factor for all periods of time. Korean banks are also more profitable when their the Loan-deposit rate gap get bigger and the Number of stores grows. The wholesale funding ratio is analyzed to have no statistically significant effect on the profitability of banks. Rather than being influenced by macroeconomic indicators, it is indicated that the situation of individual banks and other financial environments have been affected. And banks increase profitability as banks increase their loan after the financial crisis. The empirical analysis shows that profitability factors have periodical distinctions, and in this aspect, this research has implications. The study needs to be expanded to cover the entire domestic banking sector, in consideration of the profitability of the banking industry in the future.

■ keyword : | Bank's Funding Structure | Wholesale Funding Ratio | Operating Profit on Assets | Profitability Index |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

접수일자 : 2017년 11월 15일
수정일자 : 2017년 12월 13일
심사완료일 : 2017년 12월 13일
교신저자 : 엄재근, e-mail : 01027144370@naver.com

I. 서 론

1. 연구배경

국내은행의 영업환경은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의 하락과 더불어 수신 영업활동 측면에서 계좌이동제, 종합자산관리서비스, 핀테크 영업영역 확대 등 새로운 경쟁체제에 직면하고 있으며 여신 영업활동에 있어서는 실적 증가 요인에 의한 리스크 확대 등 지속적인 수익성 감소로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다.

은행의 수익성과 자금조달구조는 밀접한 관련성이 있으며, 우리나라는 글로벌 금융위기 이전인 2005년부터 2008년까지 은행의 자금운용의 원천인 자금조달을 양도성정기예금(CD) 및 은행채 등 시장성수신을 통해 조달하여 원화대출금이 연평균 13.2% 성장하였고 총수신 중에서 시장성수신의 비중도 증가하였으며, 이러한 결과 예대율이 크게 상승하면서 예금 조달금리 및 시장성수신 조달금리도 상승하였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우리나라 주택담보대출 수요 둔화로 원화대출금이 감소하면서 가계대출금의 평균이자율도 하락하게 되었다. 우리나라의 지속적인 저금리 상황 및 부동산가격 상승은 국내은행의 수신 및 여신 영업활동에 있어서 경쟁체제를 심화시켰으며 대출자산 확대 경쟁으로 국내 일반은행의 자금조달의 어려움과 유동성 경색은 양도성예금, 은행채 등 시장성수신을 증가시키는 결과를 초래하였다[1].

국내은행은 수익성을 개선하여 우리나라 경제 전체에 영향을 주는 은행산업이 성장・발전하도록 공적 역할을 충실히 하여야 하며 그 요인을 파악하여 해결방안을 찾아야 할 것이다. 그 방안으로 은행이 전략의 변화 및 은행 내부의 소프트웨어 개혁 등을 통해 수익성 개선을 하려는 노력을 하여야 하며 그러기 위하여 비이자이익 개선, 부실채권 회수 극대화, 은행의 비용절감, 영업범위 확장에 의한 새로운 고객 창출로 새로운 수익원 발굴을 모색하여야 한다[2].

은행의 자금조달방법 중에서 국내은행은 전통적으로 핵심예금을 통해 자금을 조달해 왔으며 변동성이 큰 예금이 자금조달원천인 경우 은행의 유동성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않으며, 저금리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저리의 예금을 통한 자금조달을 기반으로 자금운용을 하여 수익을 창출하기에는 금융환경이 어려운 상황이다.

핵심예금이 수익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핵심예금은 은행의 수익성을 감소시킨다[3]. 시장성수신 비중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은행의 수익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4]. 이와 같은 기존연구를 통해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국내은행은 예금뿐만 아니라 다양한 금융상품을 통한 자금조달을 하기 위하여 은행의 자금조달구조를 변화시킬 필요가 있으며 장시간의 표본기간을 통해 시장성수신이 수익성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볼 필요성도 제기되고 있다. 은행의 수익요인은 그 나라의 금융 규제 등 금융환경과 개별 은행이 처한 경영여건 등으로 달라질 수 있으며, 본 연구에서는 시장성수신비중, 원화예대금리차, 점포수, 비용효율성, 고정이하여신비율, BIS기준자기자본비율, 원화유동성, 총자산대비대출금비중, 실질GDP증가율을 수익요인으로 보고 은행의 수익성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특히 기존 연구가 일시적인 기간에 대한 연구에 국한되었지만 본 연구는 금융위기 전, 후를 구분하여 비교하므로 수익성에 변수들이 어떠한 변화가 있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통하여 외부적인 영향이 은행의 수익성의 변수의 영향에도 변화를 일으킬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2. 연구목적

본 연구에서는 은행의 수익창출의 지표라고 할 수 있는 총자산영업이익률을 수익성지표로 하여 은행의 수익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를 하고자 한다. 은행의 수익요인으로는 주요 관심변수인 시장성수신을 금융감독원 기준[5]에 따라 원화금융채, 양도성예금증서(CD), 기타원화자금조달(RP등)으로 구성하였으며 시장성수신비중을 포함하여 8개의 설명변수를 사용하고 개별 은행의 14년간 시계열을 갖는 균형 패널 데이터를 이용하여 수익성에 미치는 영향을 다중회귀분석하여 규명하고자 한다.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은행의 시장성수신비중이 급증하면서 유동성관리를 위해 금융당국이 예대율규제를 도입하고, 금융위기이후에는 시장성수신비중이 다시 감소하게 되었다[6]. 대부분의 은

행이 금융위기이전 보다 금융위기이후에 수익성이 더 하락하는 것을 알 수 있으며, 이러한 측면에서 시장성 수신비중이 은행의 수익성에 미치는 영향에 관하여 금융위기전·후로 그 차이가 있는지를 살펴보기 위해 분석기간을 전체기간 및 금융위기이전과 금융위기이후로 나누어 비교 분석하고자 한다. 이에 본 연구가 기존연구와 차이점을 가지며 그 의미가 있다. 글로벌 금융위기를 겪으면서 국내은행들의 수익성은 현저히 낮아졌으며 자금조달측면에서 살펴보면 시장성수신비중이 크게 감소하였고 은행의 대출자산도 감소하게 되면서 수익성도 크게 하락하였는데 이는 금융위기 직후 국내은행들이 대출자산을 확대하여 수익성을 개선하고자 하였으나 금융당국의 예대율규제로 시장성수신에 의한 자금조달이 감소되었고 대출자산 확대 경쟁도 진정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로부터 금융위기가 우리나라 은행산업의 수익성에 영향을 미치는 외부적 금융환경 요인이었다고 추정할 수 있다. 본 연구의 구성은 Ⅰ장 서론에 이어 Ⅱ장 문헌연구와 가설설정에서 선행연구를 살펴보고, Ⅲ장 연구방법 및 연구모형에서 측정변수의 조작적 정의, 연구방법, 연구표본 및 연구모형을 제시한다. Ⅳ장 분석결과에서 본 연구결과를 기술하고 Ⅴ장에서 시사점 및 한계점을 제시한다.

Ⅱ. 문헌연구와 가설설정

1. 수익성에 관한 선행연구

국내 은행산업은 금융시장 및 어려운 경쟁환경으로 수익창출을 위한 전망이 제한적이며, 은행의 지속적인 안정과 성장을 위하여 수익성 개선이 중요한 상황이다.

본 연구는 국내은행의 수익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하여 알아보고자 하며 선행연구를 통해 은행의 수익성에 대한 실증연구 결과를 고찰해 보기로 한다.

대형 은행들의 자료로 시장이자율 변동이 은행의 수익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회귀분석하고, 은행의 평균 자산 및 부채 만기를 추정하는 방법을 개발하고자 하며, 상업은행들의 단기조달하여 장기로 대출하는 관행이 불러온 시장금리의 급격한 인상이 많은 은행들의 실패를 유발시킬 수 있으며 시사점으로 시장금리 변동 반응으로 다양한 저축기관과 소규모 은행에 대한 연구방법도 확대되어야 한다[7].

은행 내부 및 외부의 수익성을 '부가가치' 개념을 도입하여 12개 국가 또는 지역의 은행 실적을 검토한 유럽, 북미 및 호주의 은행 수익성 결정요인 연구에서 다른 나라의 은행을 서로 비교하는 어려움을 피하고 수익성 지표로 총자산순이익률(ROA), 자본이익률(ROC), 부가가치총자산이익률(Value added return on total assets)을 사용한 결과 미국내 은행 수익성 결정요인 연구와 유사한 연구결과를 도출했다[8].

수익성 지표로 총자본영업이익률, 총자본경상이익률, 총자본순이익률, 자기자본순이익률, 매출액순이익률을 사용하여 시중은행과 지방은행의 수익성과 자금효율성을 비교 분석하여 은행의 경영성과에 대한 영향을 연구하고 그 결과로부터 지방은행의 수익성 및 안전성 제고 방안을 제시하였다[9].

미국에서 1980년대 후반 동안 대형 상업은행의 수익성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시계열 횡단면 회귀 분석으로 실증분석 하여 포트폴리오 믹스와 대형 은행의 수익성에 관한 연구를 하였다. 연구결과, 부동산 대출은 일반적으로 대형 은행의 수익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대형 은행은 대출 포트폴리오의 품질 저하로 실적 감소를 경험하였다[10].

은행퇴출 원인을 분석하기 위하여 1994년부터 1997년까지 22개 일반은행의 패널자료를 가지고 은행의 경영성과에 대한 결정요인을 파악하고 일반은행의 수익성 지표로 사용한 총자산순이익률(ROA), 무수익여신비율은 거시경제변수 및 은행의 자산 포트폴리오변수와 생산성변수에 복합적인 영향을 받는 것으로 연구결과를 얻었다[11].

수익성 지표로 총자산순이익률(ROA) 및 자기자본순이익률(ROE)을 독립변수로 사용하고 설명변수로는 은행 특성, 거시 경제 및 규제 지표와 재무 구조 변수를 사용하여 스페인, 포르투갈, 독일, 프랑스의 10년간의 회계 자료를 이용하여 상업은행 이자마진과 수익성의 결정요인을 연구하였다. 그 결과, 1992년 유럽외환위기(EMS crisis)는 자산의 순이자 마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었지만 은행의 수익성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대출금비율이 은행의 이자마진과 수익성에 미치는 영향이 긍정적이었고 명목실효환율은 순이자 마진 및 수익성에 아무런 영향도 미치지 못하였다[12].

우리나라 은행의 수익성 결정요인과 정책대안 연구를 실증분석한 결과 각 은행의 예대금리차는 수익성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며 1인당 경비의 증가가 은행 수익성을 악화시키며 은행의 총수신의 증가가 은행의 수익성에 영향을 주지 못한 것은 일반적 통념과 다른 것으로 주장하였다. 연구를 위하여 종속변수로 총자산순이익률(ROA)과 은행 수익성 결정 요인으로 예대금리차, 자기자본비율, 1인당 경비, 1인당 자산, 총수신 증가율, 회사채 수익률 등의 독립변수를 사용하여 회귀분석하였다[13].

1998년부터 2005년까지 9개 한국 은행과 10개 중국 은행에 대한 비교 연구에서 무수익여신비율이 한국의 은행 수익성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변수로 나타나며 은행의 경쟁력이 결국 신용평가 및 대출관리에 있다는 확인을 할 수 있다고 분석하였으며 중국의 경우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익성 결정변수는 규모변수이며 양국가 간 분석결과의 차이는 각 나라 은행산업의 영업 다각화 수준 및 글로벌 정도 차이 등으로 나타나는 것으로 분석하였다[14].

일본 은행의 수익성 결정요인을 소유구조의 유형별로 분류하여 수익성의 지속성 관련 연구를 실증분석 하였다. 2000년에서 2007년까지의 Bankscope 자료를 이용하여 총자산순이익률(ROA), 자기자본순이익률(ROE), 순이자마진(NIM)을 수익성 지표로 사용하여 분석한 결과, 지역 은행과 신용금고가 다각화 이점의 혜택을 받으며 수익성에 영향이 있으며 산업 집중, GDP 성장, 주식시장 개발의 정도는 일본 은행 수익성 결정의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며 이익의 지속성은 당해연도와 차기년도까지 현저하게 나타난다. 잘 자본화되고 낮은 신용위험을 가지고 있는 효율적인 은행은 덜 자본화되고 높은 신용위험으로 인하여 상대적으로 덜 효율적인 은행보다 더 긍정적인 결과를 나타내고 있다[15].

은행의 수익성 결정요인을 알아보기 위해 2000년부터 2009년까지 국내 일반은행의 주요 재무지표와 거시경제 자료를 이용하고 수익성 지표로 자기자본순이익률(ROE)을 사용하여 다중회귀분석한 결과 무수익여신비율(NPL)이 시중은행과 지방은행의 수익성(ROE)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었으며 그 결과 은행 내부의 부실여신관리가 자산규모 확대 등 외형확대 보다 중요하며 더 많은 경영역량을 집중하여야 한다[16].

재무특성변수가 수익성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하기 위해 국내 일반은행 13개의 2004년부터 2010년까지 자료를 가지고 회귀분석한 결과 예수금 대비 대출금 비율, 고정자산비율, 대손충당금비율은 은행 수익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중소기업대출금비율은 은행의 수익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을 밝혔다. 또한 향후 연구과제로 금융위기 이전과 금융위기 이후가 은행 수익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다른가를 알아보는 것이 연구의 한계라고도 하였다[17].

우리나라 은행의 구조적 원가동인이 수익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실증연구에서 국내은행의 규모의 대형화는 은행의 구조적비용 감소의 긍정적 영향과 구조적 수익 감소의 부정적 영향을 가지며 국내은행의 수익원 다각화는 구조적수익 증가를 통한 구조적이익 증가 요인으로 유의하게 관측되었으며 시사점으로 국내은행들이 외형적 경쟁 보다는 새로운 서비스 또는 신상품을 통해 경쟁력을 강화할 것을 제시하였다[18].

2. 가설설정

시장성수신 비중(원화발행 금융채, 양도성예금증서, 환매조건부채권 매도)을 설명변수로 하여 국내은행의 자금조달 구조가 은행의 수익성(위험조정총자산영업이익률)에 영향을 미치는지 연구하고 국내은행의 자금조달 구조는 은행 수익성 및 경영안정성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판단하였다[4].

국내은행의 수익성이 점포 비용 때문에 악화된 것이 아니며, 국내은행들의 점포망 축소는 고객 이탈과 금융사고 증가로 나타날 수 있으며, 상품판매 및 고객서비스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은행 점포의 영업력 극대화 및 금융사고 예방, 기존 점포와 연계된 인력 활용도 제고 등으로 수익성 악화에 대응하여야 한다[19].

5가지 관심변수인 자기자본비율, 요구불예금 조달비중, 유가증권 비중, 가계대출비중, 예대율과 총자산순이익률(ROA)을 사용하여 금융위기 이후 국내은행의 자금조달 및 운용구조 변화가 수익성에 미친 영향을 연구하였으며 통제변수로 비용효율성, 예대금리차, 실질GDP성장률 등을 사용하여 실증분석하였고 그 중 예대금리차 및 실질GDP성장율은 수익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판단하였다[20].

지방은행과 시중은행의 경영성과 차이연구에서 원화유동성비율을 통제변수로 사용하여 실증분석 하였으며[21], 국내은행의 핵심예금이 은행의 수익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 고정이하여신비율을 통제변수로 사용한 결과 시중은행 및 지방은행 모두 수익성(구조적 이익률)과의 관계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결과가 나타나지 않았으며, 연구의 시사점으로 시장성수신 등 다양한 자금조달 원천을 통한 은행의 수익성 극대화 노력을 제시하였다[3].

외환위기 이후 우리나라 은행산업의 영업수익에 영향을 미치는 투입물 및 상황변수의 탐색에 관한 연구에서 BIS자기자본비율이 산출물과 투입물의 관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상황변수로 나타났으며 영업수익에 양(+)의 관계로 영업수익이 높은 은행은 규제자본 관리와 높은 신용위험을 부담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22].

위의 선행연구에 기초해서 다음과 같이 8개의 가설을 세웠다.

가설 1: 시장성수신비중은 은행의 수익성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2: 원화예대금리차는 은행의 수익성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3: 점포수는 은행의 수익성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4: 비용효율성은 은행의 수익성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5: 원화유동성은 은행의 수익성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6: 고정이하여신비율은 은행의 수익성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7: BIS기준자기자본비율은 은행의 수익성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8: 대출비중은 은행의 수익성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다.

Ⅲ. 연구방법 및 연구모형

1. 측정변수의 조작적 정의

시장성수신비중(Wholesale Funding Ratio)은 은행이 금융시장에서 직접 조달하는 자금이며, 본 연구에서는 금융감독원 기준[5]으로 정의하여 원화금융채(원화사채), 환매조건부채권(RP)매도, 양도성예수금(CD)을 다루었다. 국내은행의 은행계정 재무상태표 자료를 사용하여 부채총계를 분모로 하여 시장성수신 비중을 구하였다. 강종구[23]는 종속변수로 사용하여 은행의 시장성수신 비중 결정요인과 시사점에 대하여 연구하였다.

원화예대금리차(Loan-Deposit Rate Gap)는 예금과 대출간의 금리차이이며 은행의 수익을 결정하는 원천으로 예대마진이라고도 한다. 신종협[24]은 상호저축은행의 수익성 분석에서 예대마진비율을 독립변수로 사용하였다.

원화유동성비율(Liquidity Ratio)는 은행의 자금수요에 적절히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인 유동성의 정도를 나타내는 비율이다. 박주철[21]은 지방은행과 시중은행의 경영성과 차이를 실증분석하는데 통제변수로 사용하였다.

비용효율성(Cost Efficiency)은 투입된 비용과 그로 인해 얻어지는 효용의 측면에서 본 경제성을 뜻하며, 본 연구에서는 금융감독원 “은행경영통계”로부터 은행별 총자산 및 판매비와관리비 연말 누계액으로 구하였다. 이내황[20]은 금융위기 이후 국내은행의 자금조달 및 운용구조 변화가 수익성에 미친 영향을 알아보기 위하여 통제변수로 사용하였다.

고정이하여신비율(None Performing Loan Ratio)은 은행의 총여신 중 고정이하여신이 차지하는 비율을 의미한다. 고완석 외[25]는 우리나라 은행의 구조적 원가

동인이 수익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실증연구에서 통제변수로 사용하였다.

BIS기준자기자본비율(BIS Capital Ratio)은 BIS가 정한 은행의 위험자산 대비 자기자본비율이다. 이석원[26]은 한국 은행산업 구조조정의 성과에 관한 연구를 하면서 설명변수로 사용하였다.

점포수 (Number of stores)에 대해서 본 연구에서는 금융감독원 금융통계정보시스템의 은행경영통계로부터 구한 은행별 국내지점 및 국내출장소 합계이다. 홍정효, 고보현[16]은 은행의 수익성 결정요인에 관한 실증적 연구에서 설명변수로 사용하였다.

총자산대출비중(Ratio of loan on assets)은 총자산 대비 대출금 비중을 의미하며 본 연구에서는 금융감독원 금융통계정보시스템의 은행경영통계로부터 데이터를 구하였다. 배수현, 김종두[27]는 국내은행들의 자산운용의 위험성을 연구하면서 대출비중에 대해서 중요한 요인으로 설명하였다.

실질GDP증가율(Economic growth rate)은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ECOS)에서 구한 경제성장률을 의미한다. 한상섭, 이병윤[4]은 우리나라 은행의 자금조달구조가 은행수익성 및 경영안정성에 미치는 영향 연구에서 설명변수로 사용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통제변수로 활용하였다.

2. 연구방법

본 연구에서는 아래와 같은 가설을 검증하기 위하여 다중회귀분석(multiple regression analysis)을 실시한다. 다중회귀분석은 독립변수가 2개 이상 복수이고 종속변수에 미치는 영향력의 크기를 파악하며 이를 통한 독립변수의 식은 아래와 같고, 일정한 값에 대응하는 종속변수 값을 예측하는 모형을 산출하는 방법이다. 회귀분석은 특정한 독립변수 값에 해당하는 종속변수 값들이 정규분포해야 하고 모든 정규분포의 분산은 동일해야 하며 종속변수 값들은 통계적으로 서로 독립적이어야 한다. 또한 다중회귀분석은 독립변수들 간 다중공선성이 존재하지 않아야한다[28]. 이러한 다중회귀분석의 [식 1]은 다음과 같다.

$$OPA_t = \alpha 1 + \alpha 2WFR + \alpha 3LDG + \alpha 4STO + \alpha 5CEF + \alpha 6LRT + \alpha 7NPL + \alpha 8BIS + \alpha 9LAR + \alpha 10GDP + \epsilon t$$

식 1. 다중회귀분석의 식

OPA : 총자산영업이익률
WFR : 시장성수신비중
{(양도성예수금+환매조건부채권매도+원화사채)/부채총계} X 100
LDG : 원화예대금리차
대출금리 - 예금금리
STO : 점포수
CEF : 비용효율성비율
(판매비와관리비/총자산) X 100
LRT : 원화유동성비율
(유동성자산/유동성부채) X 100
NPL : 고정이하여신비율
(고정이하분류여신/총여신) X 100
BIS : BIS기준자기자본비율
(자기자본/위험가중자산) X 100
LAR : 총자산대비대출비중
(대출금/총자산) X 100
GDP : 실질GDP증가율

3. 연구표본 및 연구모형

본 연구의 표본은 금융감독원 금융통계정보시스템의 경영정보, 은행경영통계[29] 및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ECOS)[30]으로부터 2001년말부터 2014년말까지 14년동안 총13개 국내 일반은행들을 대상으로 구하였다. 시중은행인 우리은행, 국민은행, 신한은행(통합), 하나은행(통합), 외환은행, SC제일은행, 한국씨티은행 및 지방은행인 경남은행, 광주은행, 대구은행, 부산은행, 전북은행, 제주은행을 대상으로 각 은행의 14년간의 시계열을 갖는 균형패널자료를 구하였다. 표본기간 중에 이루어진 은행간 인수·합병은 우리나라의 경우 합병이전과 합병이후 유사한 영업행태를 가지는 점을 감안하여 동일 기관으로 가정하여 통계를 계산하였다[4].

본 연구에서는 분석기간을 전체기간 및 2001년말에

서 2007년말까지의 금융위기 이전과 2008년말에서 2014년 말까지의 금융위기 이후로 나누어 다중회귀분석 하였다. 이는 2008년 서브프라임모기지 부실로 촉발된 글로벌 금융위기의 영향도 비교해서 살펴볼 수 있기 때문이다. 시장성수신비중과 수익성(총자산영업이익률)간 관계를 금융위기 전·후로 비교 분석하여 살펴볼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를 찾을 수 있다. 본 연구모형은 상기 8개의 가설을 바탕으로 아래 [그림 1]과 같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전과 이후의 구분을 보고자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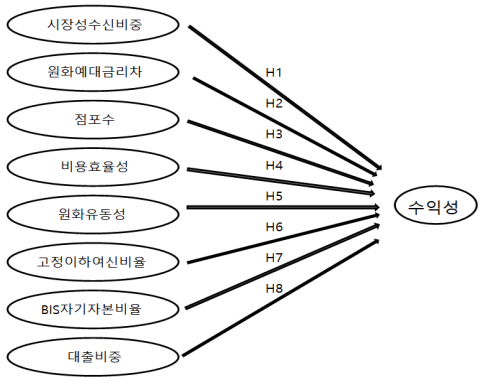

그림 1. 연구모형

Ⅳ. 분석결과

표 1. 기초통계량 분석

변수	기간	N	최소값	최대값	평균	표준편차
총자산영업이익률(PRF)	전체기간 금융위기이전 금융위기이후	182 91 91	−0.09 −0.06 −0.09	1.82 1.82 1.73	0.77 0.83 0.72	0.38 0.43 0.32
시장성수신비중(WFR)	전체기간 금융위기이전 금융위기이후	182 91 91	2.00 2.00 2.00	37.00 37.00 33.00	14.51 16.13 12.89	7.50 7.94 6.68
원화예대금리차(LDG)	전체기간 금융위기이전 금융위기이후	182 91 91	1.71 2.52 1.71	5.14 5.14 4.42	3.37 3.68 3.06	0.70 0.58 0.68
점포수(STO)	전체기간 금융위기이전 금융위기이후	165 82 83	29.00 29.00 37.00	993.00 944.00 993.00	333.51 310.32 356.42	275.81 252.70 296.64
비용효율성비율(CEF)	전체기간 금융위기이전 금융위기이후	182 91 91	60.00 60.00 77.00	203.00 203.00 183.00	126.65 133.79 119.51	28.97 30.98 25.00
원화유동성비율(LRT)	전체기간 금융위기이전 금융위기이후	182 91 91	83.00 83.00 104.00	173.00 135.00 173.00	121.92 113.26 130.58	15.37 8.51 15.83
고정이하여신비율(NPL)	전체기간 금융위기이전 금융위기이후	182 91 91	0.36 0.54 0.36	10.47 10.47 3.34	1.58 1.84 1.31	1.00 1.30 0.43
BIS기준자기자본비율(BIS)	전체기간 금융위기이전 금융위기이후	182 91 91	9.31 9.31 11.57	18.05 15.02 18.05	12.84 11.38 14.30	1.88 1.02 1.33
총자산대비대출비중(LOA)	전체기간 금융위기이전 금융위기이후	182 91 91	39.60 44.04 39.60	124.90 124.90 76.89	61.88 59.44 64.31	9.61 9.83 8.78
실질GDP증가율(GDP)	전체기간 금융위기이전 금융위기이후	182 91 91	0.70 2.90 0.70	7.40 7.40 6.50	4.04 4.90 3.17	1.71 1.31 1.63

주) 단위: 점포수를 제외한 나머지 모두 %임.

1. 표본특성

국내은행은 전체 자금조달 중에서 은행의 예금 이외에 금융시장에서 직접 조달하는 시장성수신 비중이 2000년대 들어 크게 상승하였다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 금융당국의 예대율규제로 다시 크게 하락하였으며 이는 은행이 금융위기 당시 대출자산 확대를 통한 수익창출 경쟁으로 원화예대율이 급속히 증가하게 되어 유동성 위험 문제가 대두되었으며 금융위기 직후에 예대율규제로 시장성수신 비중이 크게 감소하게 되어 CD금리가 시장 상황을 반영하지 못하거나 은행의 자금조달 측면에서 위험분산 효과를 가져올 수 없는 문제점이 발생하게 되었다[6].

2. 기초통계량

본 연구에서 사용한 변수들인 은행의 총자산영업이익률, 시장성수신비중, 원화예대금리차, 점포수, 비용효율성, 원화유동성, 고정이하여신비율, BIS기준자기자본비율, 총자산대비대출비중, 실질GDP증가율의 기술적 통계량은 [표 1]과 같다.

[표 1]은 전체기간에 평균 총자산영업이익률이 0.77을 보여주고 금융위기 전·후 0.11 만큼 차이를 나타내고 있어 금융위기이전 보다 금융위기이후에 수익성이 감소한 것을 알 수 있다. 이와 동일하게 관심변수인 시장성수신비중도 금융위기이전에 비해 금융위기이후에 평균값의 하락을 나타내고 있다. 반면에 점포수 및 원화유동성비율은 금융위기이후에 증가한 것을 보여준다. 전체 기간에 걸쳐 각 변수별 최소값과 최대값의 차이가 크게 나타났으며 이는 분석기간 동안 개별 은행의 영업환경 및 경영상황에 있어서 많은 차이가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총자산대비대출비중은 전체 기간에 걸쳐 최소값과 최대값의 차이가 크고 금융위기이전에 비해서 금융위기이후에 평균값이 큰 폭으로 하락한 것을 보여주고 있으며 이로부터 금융위기 직후 은행의 대출자산 확대 경쟁이 초래한 예대율규제로 인하여 시장성수신비중이 하락하고 원화대출금도 감소한 것으로 추정된다.

3. 상관관계 분석

[표 2]는 수익성 지표를 나타내는 종속변수인 총자산영업이익률과 설명변수들 간의 상관관계 분석이다. 관심변수인 시장성수신비중은 전체기간 동안 0.05%수준에서 유의미한 양의 상관관계를 보여주고 있으며 원화예대금리차는 전체기간 및 금융위기 전·후 모든 기간에 걸쳐 0.01수준에서 유의미하게 긍정적(+)인 상관관계를 나타낸다. 이 결과 시장성수신비중과 원화예대금리차가 높을수록 수익성도 향상되는 것을 알 수 있다. 고정이하여신비율은 전체 기간에 걸쳐 0.01수준에서 유의미한 음의 상관관계를 나타내며 고정이하여신비율이 높은 은행 일수록 수익성은 하락하게 된다는 것을 추정할 수 있다. 점포수와 원화예대금리차 및 비용효율성은 전체 기간에 걸쳐 0.01수준에서 유의미하게 음의 상관관계를 보여주며 점포수가 많을수록 원화예대금리차 및 비용효율성은 낮아지는 것을 알 수 있다. 시장성수신비중과 총자산대비대출비중은 금융위기이전은 유의미한 긍정적인(+) 상관관계를 나타내고 금융위기이후에는 유의미한 부정적인(-) 상관관계를 나타내고 있다. 이러한 상반된 결과는 금융위기이전 시장성수신을 통한 자금조달로 대출자산이 증가하였으며 그로 인하여 원화예대율이 높아지게 되면서 금융위기직후 금융당국의 리스크관리를 위한 예대율 규제로 은행의 대출자산이 감소하게 되었음을 알 수 있다.

4. 다중회귀분석

국내 시중은행과 지방은행의 수익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를 금융위기 전·후 비교 분석하기 위하여 다중회귀분석을 한 결과는 [표 3]과 같다.

모형 적합도 검증에서 전체기간 및 금융위기이전과 이후 모두 1%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으며 전체기간 동안 모형의 설명력을 보여주는 R^2는 38%이고 금융위기이전 R^2는 42.1%, 금융위기이후 R^2는 57.4%로 나타나고 있다. 또한 회귀식이 얼마나 통계적으로 유의한지 검정한 결과 전체기간, 금융위기이전, 금융위기이후 모두 1%수준으로 유의함을 보여 주고 있다.

표 2. 변수들 간의 상관계수

	총자산 영업 이익률	시장성 수신 비중	원화 예대 금리차	점포수	비용 효율성 비율	원화 유동성 비율	고정이 하여신 비율	BIS기준 자기자 본비율	총자산 대비대 출비중	실질 GDP 증가율
총자산영업이익률	1	.172*	.369**	−.018	−.021	.102	−.271**	−.072	.002	.231**
전체기간	1	.156	.279**	.209	−.075	.094	−.360**	.315**	.009	.225*
금융위기이전	1	.131	.435**	−.243*	−.032	.355**	−.275**	−.186	.087	.155
금융위기이후										
시장성수신비중										
전체기간	.172*	1	.117	−.027	.043	−.154*	−.264**	−.196**	−.001	.047
금융위기이전	.156	1	−.367**	.208	−.163	−.090	−.384**	.276**	.262*	.055
금융위기이후	.131	1	.422**	−.239*	.213*	−.012	−.314**	−.341**	−.214*	−.200
원화예대금리차										
전체기간	.369**	.117	1	−.517**	.584**	−.049	.133	−.310**	−.344**	.279**
금융위기이전	.279**	−.367**	1	−.389**	.613**	−.063	.075	.203	−.046	.007
금융위기이후	.435**	.422**	1	−.632**	.494**	.434**	−.124	−.035	−.484**	.116
점포수										
전체기간	−.018	−.027	−.517**	1	−.547**	−.241**	.040	.123	.133	−.045
금융위기이전	.209	.208	−.389**	1	−.543**	−.055	.012	−.027	.125	−.020
금융위기이후	−.243*	−.239*	−.632**	1	−.568**	−.488**	.234*	.166	.107	.007
비용효율성비율										
전체기간	−.021	.043	.584**	−.547**	1	−.011	.115	−.081	−.129	.095
금융위기이전	−.075	−.163	.613**	−.543**	1	.113	.104	.256*	.119	−.062
금융위기이후	−.032	.213*	.494**	−.568**	1	.217*	−.126	.125	−.333**	−.011
원화유동성비율										
전체기간	.102	−.154*	−.049	−.241**	−.011	1	−.244**	.479**	.164*	−.287**
금융위기이전	.094	−.090	−.063	−.055	.113	1	−.224*	.095	−.096	.005
금융위기이후	.355**	−.012	.434**	−.488**	.217*	1	−.057	.067	.102	−.003
고정이하여신비율										
전체기간	−.271**	−.264**	.133	.040	.115	−.244**	1	−.281**	−.196**	.166*
금융위기이전	−.360**	−.384**	.075	.012	.104	−.224*	1	−.222*	−.246*	−.078
금융위기이후	−.275**	−.314**	−.124	.234*	−.126	−.057	1	.031	.180	.342**
BIS기준자기자본비율										
전체기간	−.072	−.196**	−.310**	.123	−.081	.479**	−.281**	1	.124	−.384**
금융위기이전	.315**	.276**	.203	−.027	.256*	.095	−.222*	1	.090	−.002
금융위기이후	−.186	−.341**	−.035	.166	.125	.067	.031	1	−.308**	.032
총자산대비대출비중										
전체기간	.002	−.001	−.344**	.133	−.129	.164*	−.196**	.124	1	−.161*
금융위기이전	.009	.262*	−.046	.125	.119	−.096	−.246*	.090	1	−.100
금융위기이후	.087	−.214*	−.484**	.107	−.333**	.102	.180	−.308**	1	.015
실질GDP증가율										
전체기간	.231**	.047	.279**	−.045	.095	−.287**	.166*	−.384**	−.161*	1
금융위기이전	.225*	.055	.007	−.020	−.062	.005	−.078	−.002	−.100	1
금융위기이후	.155	−.200	.116	.007	−.011	−.003	.342**	.032	.015	1

1) 피어슨상관계수입니다.
2) *, 상관이 0.05 수준에서 유의합니다(양쪽).
**, 상관이 0.01 수준에서 유의합니다(양쪽).

표 3. 다중회귀분석 결과

모형		구분	비표준 계수		표준 계수	t	유의수준
			B	표준 오차	베타		
1	(상수)	전체기간	−.734	.395		−1.859	.065
		금융위기이전	−1.739	.839		−2.074	.042
		금융위기이후	−1.039	.557		−1.864	.066
	시장성수신비중	전체기간	.001	.003	.028	.402	.689
		금융위기이전	.006	.006	.126	1.100	.275
		금융위기이후	−.008	.005	−.154	−1.538	.128
	원화예대금리차	전체기간	.334	.049	.628	6.751	.000
		금융위기이전	.432	.094	.600	4.595	.000
		금융위기이후	.427	.067	.906	6.335	.000
	점포수	전체기간	.000	.000	.224	2.591	.010
		금융위기이전	.000	.000	.271	2.378	.020
		금융위기이후	.000	.000	.340	2.692	.009
	비용효율성비율	전체기간	−.003	.001	−.269	−3.049	.003
		금융위기이전	−.004	.002	−.319	−2.222	.029
		금융위기이후	−.001	.001	−.096	−.932	.354
	원화유동성비율	전체기간	.005	.002	.207	2.507	.013
		금융위기이전	.008	.005	.153	1.595	.115
		금융위기이후	.001	.002	.068	.654	.515
	고정이하여신비율	전체기간	−.099	.026	−.273	−3.787	.000
		금융위기이전	−.076	.034	−.248	−2.280	.026
		금융위기이후	−.317	.065	−.429	−4.912	.000
	BIS기준자기자본비율	전체기간	−.011	.016	−.054	−.647	.519
		금융위기이전	.044	.041	.106	1.073	.287
		금융위기이후	−.031	.023	−.128	−1.321	.191
	총자산대비대출비중	전체기간	.003	.003	.089	1.230	.221
		금융위기이전	−.003	.004	−.085	−.826	.411
		금융위기이후	.017	.004	.477	4.169	.000
	실질GDP증가율	전체기간	.037	.015	.174	2.461	.015
		금융위기이전	.042	.028	.136	1.495	.139
		금융위기이후	.039	.017	.200	2.374	.020

종속변수와 독립변수들 간의 영향 관계를 분석한 결과 [표 3]과 같이 전체기간과 금융위기 전·후 모든 기간에 걸쳐 유의미한 결과를 나타내는 독립변수는 원화예대금리차(1%수준), 점포수, 고정이하여신비율이며, 이 변수들 중 총자산영업이익률에 유의하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원화예대금리차 및 점포수이며 총자산영업이익률에 유의미한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고정이하여신비율이다. 시장성수신비중과 BIS기준자기자본비율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결과를 보여 주지 못하며 총자산대비대출비중은 금융위기 이후만 유의미한 긍정적 영향(+)을 나타낸다. 실질GDP증가율은 전체기간과 금융위기이후에 유의미한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분석 결과를 볼 수 있다.

이와 같이 [표 3]의 다중회귀분석 결과를 통해 가설1: 시장성수신비중은 은행의 수익성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다라는 것은 유의미하지 않은 분석 결과로 전체 기간 모두 기각된다. 원화예대금리차는 은행의 수익성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다라는 가설 2 및 점

포수는 은행의 수익성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다라는 가설 3은 채택되며, 비용효율성은 은행의수익성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다라는 가설 4는 금융위기 이후만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못하여 기각된다. 원화유동성은 은행의 수익성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다라는 가설 5는 전체기간만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결과로 채택된다. 고정이하여신비율은 은행의 수익성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다라는 가설 6은 분석결과가 통계적으로 음(-)의 유의수준을 나타나고 있어서 전체 기간 모두 채택된다. BIS기준자기자본비율은 은행의 수익성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다는 가설 7은 전체기간에 걸쳐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은 분석결과를 보여주어 모두 기각된다. 가설 8: 대출비중은 은행의 수익성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다는 금융위기이후만 총자산대비대출비중이 1%수준에서 유의미하게 긍정적인 영향(+)을 나타내며 채택된다. 이러한 결과로부터 국내은행은 원화예대금리차가 커지고 점포수가 증가할수록 수익성도 향상되었으며 부실여신이 증가하면 수익성도 하락하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국내 금융환경의 유동성 상태에 따라서도 은행의 수익성은 영향을 받는 것으로 추정되며 금융위기직후에 급속한 대출자산 확대 경쟁에서 벗어난 은행 여신의 증가는 수익성(총자산영업이익률)에 많은 도움을 주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가설설정에 대한 결과는[표 4] 그리고 [그림 2]와 같다.

표 4. 가설설정에 대한 결과표

가설	분석기간	결과
가설1 시장성수신비중은 은행의 수익성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다.	전체기간	기각
	금융위기이전	기각
	금융위기이후	기각
가설2 원화예대금리차는 은행의 수익성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다.	전체기간	채택
	금융위기이전	채택
	금융위기이후	채택
가설3 점포수는 은행의 수익성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다.	전체기간	채택
	금융위기이전	채택
	금융위기이후	채택
가설4 비용효율성은 은행의 수익성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다.	전체기간	채택
	금융위기이전	채택
	금융위기이후	기각
가설5 원화유동성은 은행의 수익성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다.	전체기간	채택
	금융위기이전	기각
	금융위기이후	기각
가설6 고정이하여신비율은 은행의 수익성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다.	전체기간	채택
	금융위기이전	채택
	금융위기이후	채택
가설7 BIS기준자기자본비율은 은행의 수익성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다.	전체기간	기각
	금융위기이전	기각
	금융위기이후	기각
가설8 대출비중은 은행의 수익성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다.	전체기간	기각
	금융위기이전	기각
	금융위기이후	채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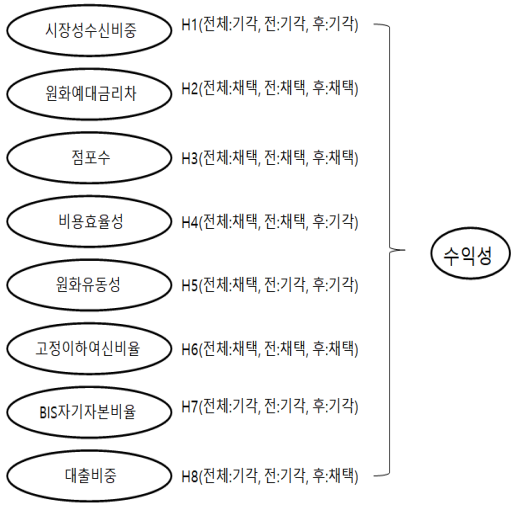

그림 2. 모형분석 결과

V. 시사점 및 한계점

1. 시사점

본 연구는 은행의 수익성 요인에 관하여 기존연구에서 다루었던 은행의 전통적 자금조달방법인 핵심예금이 아닌 시장성수신에 의한 자금조달 및 그 외 관심변수들을 수익성에 미치는 요인으로 하여 연구를 실시하였다. 국내 금융환경의 변화요인이었던 예대율규제, 유동성 경색, 국내은행의 자산확대 경쟁 등의 영향이 은행의 수익요인과 관련이 있는지 살펴볼 수 있도록 14년

간의 분석기간을 전체기간 및 금융위기 전·후로 비교하여 분석하였으며 이에 본 연구의 차별성 및 의미를 찾을 수 있다.

본 연구결과를 토대로 은행 수익성에 관한 지속적인 심층 연구가 이루어지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시사점을 제시한다.

첫째는 국내은행이 향후 은행의 수익성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다양한 자금조달방식을 도입해야 하며 이러기 위하여 국내 금융시장에 관한 연구와 병행하여 새로운 저비용의 안정적인 자금조달원 확보를 도모해야 한다.

둘째는 국내은행의 지속적인 수익 창출을 위해서는 본 연구결과를 통해서 알 수 있듯이 점포수를 줄이는 것만이 수익성 제고에 도움이 되는 것이 아니며 부실여신을 줄이는 노력이 보다 더 수익성 증가에 도움이 된다는 것이며 부실 증후에 대한 리스크관리도 심도있게 고려된 영업 실적 확대가 이루어져야 한다.

셋째는 본 연구에서 사용된 8개의 수익요인은 은행의 경영지표로서 은행산업의 재무 및 수익관리 연구에 유용한 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

넷째는 본 연구를 위하여 개별 은행들의 14년간의 시계열을 갖는 균형 패널자료를 가지고 다중회귀분석으로 8개의 가설을 설정하고 이를 전체기간 및 금융위기 이전과 이후의 3단계로 나누어 실증분석을 통하여 결과를 비교 분석한 결과, 전체기간에서 나타난 분석결과가 반드시 금융위기이전 및 금융위기 이후와 유사하지 않고 달리 나타나는 것을 알 수 있으며 이로부터 연구결과의 구분기간별 특징을 추정할 수 있다는 것이다.

다섯째는 본 연구는 금융위기 전과 후에 은행의 수익성에서 비용효율성과 대출비중의 영향이 차이가 있다는 것을 밝혔다. 비용효율성은 금융위기 전에는 은행의 수익성에 영향을 주었지만, 금융위기 후에는 유의미한 영향을 주지 못하였다. 반면 대출비중은 금융위기 전에는 은행의 수익성에 영향을 못주었지만, 금융위기 후에는 유의미한 영향을 주고 있다. 기존 연구가 단순한 기간을 대상으로 분석하고 있지만 본 논문은 금융위기 전, 후 분석으로 의미를 확대하였다.

2. 한계점 및 향후 연구

은행의 수익성 요인에 관한 연구는 그 동안 주로 시중은행 및 지방은행인 일반은행을 대상으로 이루어졌으며, 본 연구도 국내 일반은행을 대상으로 연구하였다. 국내 금융환경에서 일반은행 이외에 특수은행의 역할 또한 매우 크기 때문에 특수은행의 수익성이 국내 경제에 미치는 영향도 중요하며 그에 따라서 연구할 의미도 크다고 할 수 있다. 향후 이러한 맥락에서 일반은행 및 특수은행을 모두 포함하는 국내은행 전체의 수익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한 심층적인 연구가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향후 일반은행과 특수은행의 수익요인에 대한 비교 분석과 관련된 연구도 추가적으로 다루어져야 하며 이 또한 의미를 가진다.

참 고 문 헌

[1] 김병연, “일반은행의 순이자마진(NIM) 감소요인 분석,” 한국금융연구원, 주간금융브리프, 제19권, 제44호, pp.8-9, 2010.

[2] 이병윤, “국내은행의 어려운 영업환경과 대응전략,” 금융감독원, 주간금융브리프, 제22권, 제9호, pp.3-9, 2013.

[3] 배수현, “은행의 핵심예금이 수익성에 미치는 영향,” 세무회계연구, 제40권, 제0호, pp.109-127, 2014.

[4] 한상섭, 이병윤, “우리나라 은행의 자금조달 구조가 은행수익성 및 경영 안정성에 미치는 영향,” 한국금융연구원, 연구보고서, 제2012권, 제5호, pp.1-89, 2012.

[5] 금융감독원 보도자료, 2011.5.25., “최근 국내은행의 자금조달·운용 현황,” 2011.

[6] 이병윤, “은행의 자금조달 방식과 경영안정성,” 한국금융연구원, 주간금융브리프, 제21권, 제31호, pp.3-7, 2012.

[7] M. J. Flannery, "Market Interest Rates and Commercial Bank Profitability: An Empirical Investigation," The Journal of Finance, Vol.36, No.5, pp.1085-1101, 1991.

[8] P. Bourke, "Concentration and Other Determinants of Bank Profitability in Europe, North America and Australia," Journal of Banking & Finance, Vol.13, No.1, pp.65-79, 1999.

[9] 김태혁, "시중은행과 지방은행의 수익성과 자금 효율성 비교분석," 한국금융연구원, 연구보고서, 제1994권, 제3호, pp.67-81, 1994.

[10] S. M. Miller and A. G. Noulas, "Portfolio mix and large- bank profitability in the USA," Applied Economics, Vol.29, No.4, pp.505-512, 1997.

[11] 이영수, 이충열, "은행퇴출과 은행경영성과에 관한 내용," 금융학회논문지, 제4권, 제1호, pp.49-78, 1999.

[12] M. Abreu and V. Mendes, "Commercial bank interest margins and profitability: evidence for some EU countries," paper presented at the Pan-European Conference Jointly Organised by the IEFS-UK & University of Macedonia Economic & Social Sciences, Thessaloniki, pp.17-20, May, 2001.

[13] 정지만, "우리나라 은행의 수익성 결정요인과 정책대안," 금융연구, 제15권, 제1호, pp.1-32, 2001.

[14] 박상철, 유락초, "한·중 은행산업의 수익성 결정 변수에 관한 실증적 비교분석," 한국국제경영관리학회, 추계국제학술대회 논문집, pp.267-284, 2007.

[15] H. Liu and J. O. S. Wilson, "The profitability of banks in Japan," Applied Financial Economics, Vol.20, No.24, pp.1851-1866, 2010.

[16] 홍정효, 고보현, "은행의 수익성 결정요인에 관한 실증적 연구," 산업경제연구, 제23권, 제2호, pp.889-906, 2010.

[17] 이명철, 박주철, "일반은행의 수익성에 영향을 미치는 재무특성," 세무회계연구, 제30권, 제0호, pp.69-84, 2011.

[18] 고완석, 이덕훈, 김완중, "우리나라 은행산업의 구조적 이익 결정요인에 관한 연구," 한국회계학회, 학술발표논문집, pp.1-25, 2010.

[19] 서병호, "국내은행 점포망 재편의 이슈 및 과제," 한국금융연구원, 주간금융브리프, 제23권, 제10호, pp.16-17, 2014.

[20] 이내황, "금융위기이후 국내은행의 자금조달 및 운용구조변화가 수익성에 미친 영향," 산업경제연구, 제28권, 제5호, pp.1847-1884, 2015.

[21] 박주철, "지방은행과 시중은행의 경영성과 차이," 세무회계연구, 제28권, 제0호, pp.1-17, 2011.

[22] 유상열, 박범조, "외환위기이후 우리나라 은행산업의 영업수익에 영향을 미치는 투입물 및 상황변수의 탐색," 한국자료분석학회, J. of the Korean Data Analysis Society, 제12권, 제1호, pp.369-384, 2010.

[23] 강종구, "은행의 시장성수신 비중 결정요인과 시사점," 국제경제연구, 제16권, 제3호, pp.21-49, 2010.

[24] 신종협, "상호저축은행의 수익성 분석: 글로벌 금융위기와 프로젝트 파이낸싱의 영향을 중심으로," 시장경제연구, 제41권, 제2호, pp.75-98, 2012.

[25] 고완석, 이덕훈, 김완중, "우리나라 은행의 구조적 원가동인이 수익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실증연구," 회계저널, 제21권, 제1호, pp.117-145, 2012.

[26] 이석원, "한국 은행산업 구조조정에 성과에 관한 연구," 재무관리연구, 제18권, 제1호, pp.83-106, 2001.

[27] 배수현, 김종두, "은행의 자산운용의 위험성이 수익성에 미치는 영향," 한국세무회계학회지, 제38권, 제38호, pp.57-78, 2013.

[28] 이훈영, *연구방법론*, 청람출판사, 2014.

[29] http://fisis.fss.or.kr/fss/fsiview/indexw.html

[30] http://ecos.bok.or.kr/

저 자 소 개

김 미 경(Mi-Kyung Kim) 정회원

- 2011년 2월 : 고려대학교 경영대학원(경영학석사)
- 2012년 3월 ~ 2014년 2월 : 서울과학종합대학원대학교 박사수료
- 2017년 7월 ~ 현재 : 한국산업은행 리스크관리부문 부장

<관심분야> : 재무, 회계, 파생상품, 외환

엄 재 근(Jae-Gun Eom) 정회원

- 2012년 8월 : 서강대학교 경영대학원(경영학석사)
- 2015년 8월 : 서울과학종합대학원대학교 졸업(경영학박사)
- 2016년 3월 ~ 현재 : 서울과학종합대학원대학교 겸임교수

<관심분야> : 재무, 회계, 국제경영